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강하은, 조영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Regulati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Ha-Eun Kang, Young-A Cho*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ngji University

요약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학대 경험과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지역 지역아동 보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 되었거나 학대의심사례로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1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거부민감성, 정서조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과 부트스트랩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학대 경험은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거부민감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정서조절은 거부민감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거부민감성은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정서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경험으로 인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이들의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상담개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has been increasing and, consequently, the social interest in this issue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regul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on child abuse,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was administered to 21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who had been reported as victims of child abuse or managed as suspected child abuse victims in the Seoul,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and Gyeongsang region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d bootstrapping. The findings showed that child abus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regulation,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regula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Second,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lso reveal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regulation. This means that child abuse has an indirect effect on emotional regulation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erefore, when counseling abused children with emotional regulation problems, it is important for the counselors to include interventions designed to lower their rejection sensitivity.

Keywords : abused Children, child abuse, emotional Regulation, rejection sensitivity, mediating effect

본 논문은 강하은(2017년)의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ung-A Cho(Sangji Univ.)

Tel: +82-33-738-7848 email: life7777@hanmail.net

Received August 31, 2017

Revised (1st October 10, 2017 2nd October 31,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태가 19,000건을 넘어섰으며, 17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하였다[1]. 학대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학대는 애착외상으로 작용하여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여 성인기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2],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 학업성취, 또래관계, 범죄 등 여러 가지 적응 및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3]. 특히 학대 경험은 아동기 거의 모든 정서 및 발달 장애의 원인 또는 선행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4], 정서장애와 부적응 행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서조절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5, 6, 7].

정서조절은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변별하여 이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시키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서 표현 및 조절이 미숙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또래 관계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9].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며 또래 혹은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10]. 즉, 정서조절은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isenberg, Cumberland 및 Spinrad[11]에 따르면, 아동은 발달 초기에 생리적 불균형 및 환경과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정서적 각성을 양육자의 보살핌과 달랠을 통하여 조절해 나간다.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동적인 친사회적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나 학대와 같이 이 시기에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거나 적절한 지지와 달랠이 결핍되는 경우,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성과 자발적·목적의식적 조절 행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넓

은 의미의 정서조절능력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져오게 된다[12]. 즉,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조절 곤란은 부모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과 모델링의 결과일 수 있으며[13], 정서와 정서관리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초기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Pitman, Orr 및 Shalev[15]에 의하면, 학대는 정서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분노조절의 곤란, 자기 파괴적 행동, 자살행동 등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또한 Krause, Mendelson 및 Lynch[16]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가 개인의 정서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여 성인기에 만성적인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김지영[17]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 속에서 성장한 아동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로 인해 갈등상황에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최지경과 한유진[18]의 정서지능 연구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에서 모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정서조절을 매개하는 변인을 밝혀내고 이를 활용하여 정서조절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내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거부상황에서 개인들의 반응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거부를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19]. Romero-Canyas 등[20]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활성화되면 거부단서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집중하게 되고 과민하게 되어 실제로 거부를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사회불안과 위축 등의 형태로 방어적 반응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반응을 나타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21].

장미희와 이지연[22]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박우람과 홍상황[23]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최은선과 권해수[2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는 여러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Selby, Ward, 및 Joiner[25]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증상인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정서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Velotti, Garofalo 및 Zavattini[26]는 수감자들의 정서적 수용력의 곤란과 거부민감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한편,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학대나 또래의 무시, 따돌림과 같은 이전의 거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고 발달된다[27,28]. Downey와 Feldman[29]에 따르면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가혹한 훈육, 가정폭력, 정서적 무시, 부모의 조건적 사랑 등이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고 한다[23].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언제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악의 없는 행동에서도 거부를 지각한다[24].

학대는 전형적으로 실제적인 거부를 수반하는 경험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중 특히 아동에 대한 무관심, 거부적 태도, 제재적 태도 및 경멸, 무시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가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30]. 하수홍과 장문선[3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 경험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 경험은 거부민감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은실[32]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분노민감성, 거부우울민감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황은수와 성영혜[3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학대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극단적인 거부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거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인 거부민감성은 함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서조절과 관련해서 이 둘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아동이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거부민감성이 함께 관계적 공격성이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변은실과 이주영[34]의 연구나 정서적 학대와 거부불안민감성이 또래 괴롭힘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홍상황과 박해정[35]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살펴볼 때, 공격성이나 또래 괴롭힘과 관련이 깊은 정서조절에도 피학대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거부민감성을 높여서 정서조절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주로 아동의 학대 경험, 거부민감성 각각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을 뿐 이 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거부민감성이 학대로 인한 감정조절실패의 악화기제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는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대피해 관련 연구가 성인기 이후를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회상적 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학대경험이 아동기 정서조절에 미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초등학교 고학년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기 사회인지적 정보처리, 정서처리 과정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치료적 개입초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학대나 정서조절이 거부민감성 뿐 만 아니라 자기통제력[36], 정서인식명확성[37], 정보처리능력[38]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동시에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이 학대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매개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1.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역할을 검증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정서적 개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아동의 학대 경험과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아동의 학대경험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경쟁모형을 Fig 2와 같이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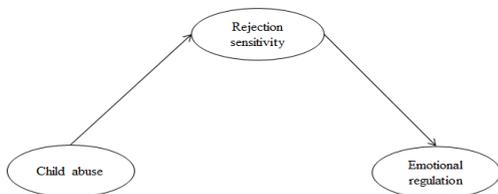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full med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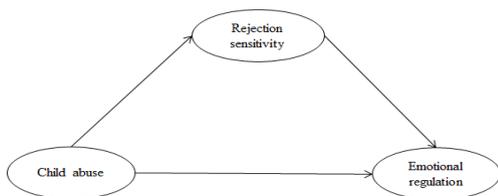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partial mediation)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서울·경기 3개 지역, 강원 3개 지역, 충청 1개 지역, 경상 2개 지역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거나 학대의심사례로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강원 1개 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설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수거하였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상담교사에게 설문 내용과 설문 실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사회복지사, 상담교사는 아동에게 설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배부 및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은 총 263명이었으며, 이중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반복해서 같은 번호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217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아동학대 측정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39]과 김세원[40]이 구성한 아동학대 척도를 재구성하여 이승훈과 이세나[4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임 4문항, 정서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2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승훈과 이세나[4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방임 .82, 정서적 학대 .82, 신체적 학대 .86으로 나타났다.

2.2.2 거부민감성 측정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숙, 서수정과 신의진[42]이 Downey와 Feldman[43]의 척도를 번안하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박지윤[44]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련 상황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총 12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각 상황에 따른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예상정도를 측정하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지윤[4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거부불안민감성 .95, 거부분노민감성 .94, 거부우울민감성 .95로 나타났다.

2.2.3 정서조절 측정

정서조절 측정을 위해 Mayer와 Salovey[45]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해 문용린[4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검사 중 하지원[47]이 사용한 정서조절영

Table 1.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1. Child abuse	-										
1-1. Physical abuse	.81**	-									
1-2. Emotional abuse	.76**	.72**	-								
1-3. Neglect	.77**	.32**	.26**	-							
2. Rejection sensitivity	.34**	.21**	.25**	.32**	-						
2-1. Anxious rejection sensitivity	.32**	.20**	.24**	.30**	.97**	-					
2-2. Anger rejection sensitivity	.35**	.21**	.25**	.33**	.98**	.96**	-				
2-3.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35**	.21**	.25**	.32**	.98**	.93**	.97**	-			
3. Emotional regulation	-.29**	-.18**	-.20**	-.27**	-.56**	-.54**	-.57**	-.55**	-		
3-1 Emotional self regulation	-.29**	-.17**	-.23**	-.26**	-.56**	-.53**	-.56**	-.55**	.93**	-	
3-2 Emotional others regulation	-.24**	-.16*	-.14*	-.24**	-.48**	-.47**	-.49**	-.47**	.91**	.72**	-
M	2.66	2.88	3.07	2.34	16.83	17.73	16.42	16.35	2.14	2.13	2.15
SD	.59	.93	.78	.67	7.45	7.48	7.43	7.82	.64	.68	.70
S	-.15	-.44	-.65	.23	-.28	-.35	-.25	-.20	.69	.52	1.01
K	-.50	-.89	-.13	-.22	-1.00	-.83	-1.01	-1.01	.30	.00	1.97

** p<.01

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정서조절 8문항, 타인정서조절 7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원[47] 연구의 Cronbach's α 는 .71~.7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 정서조절 .92, 타인 정서조절 .81로 나타났다.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Kline[48]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의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셋째, 최종 모형을 선택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loger[49]가 제시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2.3 자료분석

SPSS/WIN 19.0 프로그램 및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각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3. 연구결과

3.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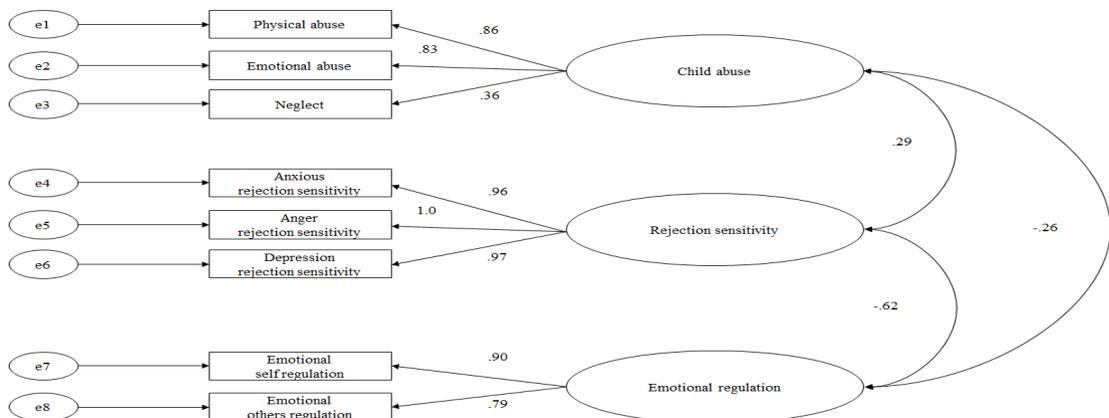


Fig. 3. Measurement model

Table 2. Values of fitness indices for the research model and competition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full mediation)	27.490	18	.000	.991	.994	.049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ion)	25.619	17	.000	.991	.995	.048
Difference	1.871	1				

** $p < .01$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정서조절($r = -.29, p < .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거부민감성($r = .3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거부민감성은 정서조절($r = -.56, p < .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3.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Fig 3과 같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 .99(.90이상이면 적합)와 CFI .99(.90이상이면 적합)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048(.10이하이면 적합)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연구모형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48].

3.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관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두 개의 모형, 즉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과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하였다. 두 모형의 지수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과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의 χ^2 차이 값이 1.87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1로 나타났다. χ^2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1에 따른 임계값인 3.84 이상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채택하고 Fig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29, p < .01$), 거부민감성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62, p < .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합도 지수가 CFI=.994, TLI=.991이고, 절대적합도 지수가 RMSEA=.049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8, p < .01$). 즉,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에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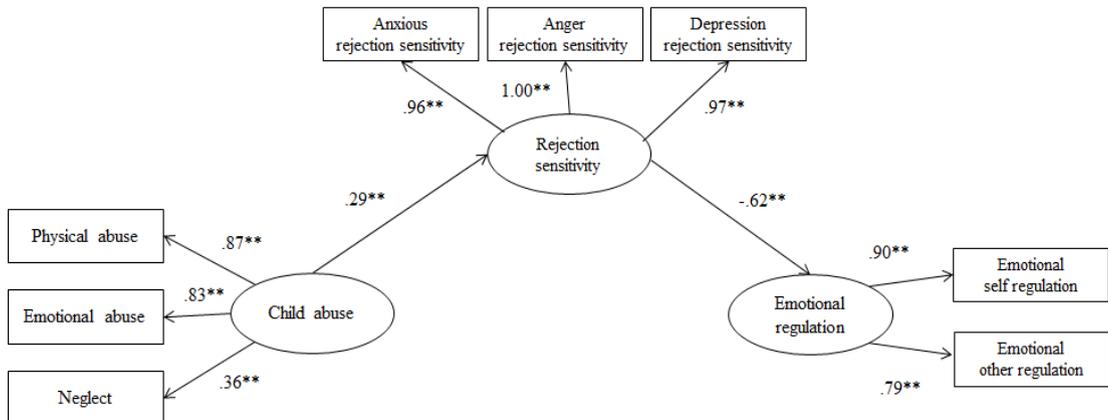


Fig. 4. Structural model

Table 3. Analysis of indirect effec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hild abuse → Rejection sensitivity	.29**		.29**
Rejection sensitivity → Emotional regulation	-.62**		-.62**
Child abuse → Rejection sensitivity → Emotional regulation		-.18** (-.26 ~ -.07)	-.18**

***p* < .01, () = confidence interval

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근거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지능이 낮고 정서를 조절이 어려우며 부적절한 반응을 주로 한다는 최지경과 한유진[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부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훈정 등[51]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표현과 정서적 각성에 대처하는 적절한 모델로서 기능하는 상호작용이 학대 부모와 자녀의 교감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학대 부모가 아동의 정서에 대한 타당화 반응과 정서 코칭에 덜 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13].

또한 아동의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선행연구[32, 31, 52]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하위요인 중 방임과 신체적 학대는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적 학대만이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은수와 성영혜[33]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은 정서적 학대 뿐 아니라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방임은 정서조절 및 거부민감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학대유형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정서처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분노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방임된 아동은 정서를 구분하고 정서표현에 반응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다는 Pollak[53]의 보고에 근거해볼 때, 학대 유형 중에서도 방임이 전반적인 정서조절 및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적 과정에 가장 폭넓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러 선행연구[22, 24]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서조절력을 높이기 위해 거부가 예상될 때 정확한 사회인지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 정보처리과정을 검토하는 능력의 증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 하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장미희와 이지연[22]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이 주 양육자의 거부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서조절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는 학대 피해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감소가 학대경험으로 인해 증가된 거부민감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의 사소하고 중립적인 반응에 대해 예기불안·예기분노·예기우울을 느끼는 심리적 특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서에서 한걸음 물러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모의 학대행위는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단계에 지나치게 주목하게 하고 고통관련 단서에 과도한 반작용을 일으키며, 이에 상응하는 갈등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54].

그러므로 학대피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충분한 지지와 수용의

경험을 제공해 주어 거부민감성을 낮추어 주어야한다. 또한 상담자는 학대 피해 아동이 거부로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거부에 대한 예기 신념을 확인하고 인지적 오류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완훈련, 상상기법, 긍정적 이미지 대체 등을 통해 거부에 대한 빠른 지각에서 생기는 부정적 정서와 지나친 긴장을 해소하여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처리의 어려움이 학대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부관련 단서에 대한 인지적 편향과 오류에 기인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대피해 아동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찰,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은 조력과정을 통해 거부로 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정서유발 단서에 대한 합리적인 지각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학대 경험과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다루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거부민감성[32, 31, 35] 혹은 아동학대와 정서조절[50, 17]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 국한하여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45.6%가 중복학대로, 아동학대가 특정 하위요인 위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가 여러 학대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아동들이 지각한 학대 경험이 아닌 임상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개인의 심리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국내연구는 대부분 일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성인에게 아동기 학대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상에게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이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확장하여 학대 경험에 따른 연령별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연구 대상자의 반응태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혹은 대리양육자 보고식 검사, 면접, 행동관찰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학대피해 아동의 인지·정서적 처리과정을 넘어서 인지·정서적 처리과정과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가 학대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National Child Abuse Report, Sejong, 2016.
- [2] Terr, L. C., Acute responses to external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pp. 755-763, 1991.
- [3] Anthony J. U., & Cynthia. W., Treatment for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fancy to age 18, U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3.
- [4]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3, no. 1, pp. 164-180, 1993.
- [5] Kim, J., & Cicchetti, D.,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51, no. 6, pp. 706-716, 2010.
- [6] Maughan, A., & Cicchetti, D.,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and interadult violence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73, pp. 1525 - 1542, 2002.
- [7] Shields, A., & Cicchetti, D.,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7, pp. 381 - 395, 1998.
- [8] J. S. Lee,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s in childhood on violent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4.
- [9] J. Y. Lee, K. J Kwak, "The Predictor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at Age 5",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velopment*, vol. 23, no. 1, pp. 85-102, 2010
- [10] O.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Master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2

- [11]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vol. 9, no. 4, pp. 241-273, 1998.
DOI: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12] J. Y. Choi, K. J. Oh. "The effects of cumulative childhood trauma on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vol. 34, no. 1, pp. 61-76, 2015.
- [13] Shipman, K. L., Schneider, R., Fitzgerald, M. M., Sims, C., Swisher, L., & Edwards, A.,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in maltreating and non maltreat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Vo.16, no. 2, pp. 268-285, 2007.
DOI: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4.x>
- [14]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vol. 75, pp. 317 - 333,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3.x>
- [15] Shalev, A. Y., Orr, S. P., & Pitman, R. K., "Psychophysiological assessment of traumatic imagery in Israeli civilia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0, pp. 620-624, 1993.
DOI: <https://doi.org/10.1176/ajp.150.4.620>
- [16]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7, no. 2, pp. 199-213, 2003.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
- [17] J. Y. Kim,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self-Esteem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focusing on tourism majored college students", *Tourism Research*, vol. 39, no. 3, pp. 377-394, 2014.
- [18] J. K. Choi, Y. J. Han, "Comparative Study of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3, pp. 49-62, 2013.
- [19] Downey, G., Feldman, S.,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6, pp. 1327-1343,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20] Romero 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 -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8, no. 1, pp. 119-148,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1.x>
- [21] S. H. Ho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Elementary Counseling Research*, vol. 11, no. 3, pp. 351-369, 2012.
- [22] M. H. Jang, J. Y. Lee, "Effects of Mother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4, no. 1, pp. 35-53, 2011.
- [23] W. R. Park, S. H. Hong, "Exploration of the Path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to Relational Aggression :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Elementary Counseling Research*, vol. 14, no. 1, pp. 1-23, 2015.
- [24] E. S. Choi, H. S. Kwon,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1, no. 4, pp. 123-132, 2013.
- [25] Selby, E. A., Ward, A. C., & Joiner, T. E., "Dysregulated eating behavio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e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linking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43, no. 7, pp. 667-670, 2010.
- [26] Velotti, P., Garofalo, C., Vari, C., & Zavattini, G. C., "Does emotion dysregulation enhance rejection sensitivity? a pilot study with inmates". *European Psychiatry*, vol. 29, no. 1, 2014.
DOI: [https://doi.org/10.1016/S0924-9338\(14\)77957-X](https://doi.org/10.1016/S0924-9338(14)77957-X)
- [27] Crick, N. R., & Grotpeter, J. K.,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no. 3, pp. 710-722, 1995.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900.x>
- [28] S. M.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Master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4.
- [29] Downey, G., & Feldman, S.,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6, no. 1, pp. 231-247, 1994.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30]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40, no. 3, pp. 369-379, 2012.
- [31] S. H. Hong, M. S. Jang,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4, no. 4, pp. 833-852, 2013.
- [32] E. S. Byun,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Master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5
- [33] E. S. Hwang, Y. H. Sung,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s on Self-Conscious Affect and Rejection Sensitivity", *Play Therapy Research*, vol. 9, no. 3, pp. 67-84, 2006.
- [34] E. S. Byun, J. Y. Lee,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4, pp. 1125-1149, 2016.
- [35] S. H. Hong, H. J. Park,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Korea Primary Education*, vol. 24, no. 2, pp. 59-74, 2013.
- [36] Y. J. Cho, J. Y. Seok, & I. J. Park, "The Effects of

- Child Abuse on Children from Their Par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of Adolescents : Differences between”, Korean Youth Research, vol. 16, no. 1, pp. 133-163, 2005.
- [37] J. E. Jung, E. J. S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5, pp. 399-420, 2016.
- [38] Y. Cho, S. J. Le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t Information Processing of Battered Women by Domestic Violence”, Probation, vol. 15, no. 2, pp. 197-233, 2015.
- [39] M. Y. Huh,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Received by Adolescent”,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40] S. W.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41] S. H. Lee, S. N. Lee, Parenting behavi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mpact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2nd Korea Children’s and Youth Panel Survey Resource Book, pp. 602-612, 2012.
- [42] K. S. Lee, S. J. Suh, Y. J. Shin,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Peer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ce Psychiatry, vol. 11, no. 1, pp. 51-59, 2000.
- [43] Downey, G., & Feldman, S.,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327-1343,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44] J. Y. Park, “The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2004.
- [45] Mayer, J., & Salovey, P.,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pp. 245-267.
- [46] Y. L. Moon, A Study on Measur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Korean Students,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1996.
- [47] J. W. Ha, “The Effects of Children’s Recognized Family Rel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Friendship”, Master Thesis, Sookmyung University, 2004.
- [48] Kline, R. B.,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The Guilford Press, 2005,
- [49] Shrout, P. E., Bolger, N.,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 7, no. 4, pp. 422-445, 2002.
- [50] S. H. Hong,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51] H. J. Koo, H. J. Cho & J.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affec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experience, affect intensity and self-harm”, Cognitive Behavior Therapy, vol. 14, no. 2, pp. 191-216, 2014.
- [52] E. S. Hwa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 Affect and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s on Depression and Anxiety”, Master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006.
- [53] Pollak, S. D., “Mechanisms linking early experience and the emergence of emotions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maltreated childre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7, no. 6, pp. 370-375, 2008.
- [54] Katz, L. F., & Gottman, J. M., Marital discord and child outcomes : a social psychophysiological approach,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조 영 아(Cho, Young-A)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상담, 긍정심리학

강 하 은(Kang, Ha-Eun)

[정회원]



- 2017년 2월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문학석사)

<관심분야>

가족상담, 긍정심리학